

2025

아르코꿈발극장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포럼

[지금, 어린이청소년극을 바라보다]

[기조발의]

우리는 왜 지금 어린이청소년공연을 말하는가

최지영
(어린이청소년극IN 편집장)

아시테지 저널, 그 1기와 2기

- 1기 『연극과 교육』

(1984 ~ 2005)

- 2기 『아동청소년극 포럼』

(2015~2020)

기조발의

어린이청소년 공연에 대하여
이 사회와 문화예술계가 진지한 탐색과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가!

1기: 연극과 교육

- 어린이청소년극의 필요성과 좋은 아동극에 대한 방향 제시
- 현장의 창작 환경과 실제 아동극의 현실을 짚어냄

2기: 아동청소년극 포럼

- 아동청소년 희곡의 창작 현장
 - 어린이 전용극장, 미래관객 개발
 - 아동극을 대하는 태도
- > 독립된 학문영역으로서 자리잡기

3기: 어린이청소년극 IN

2022: 어린이성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청소년극

2023: 어린이청소년극과 미학

2024: 어린이청소년극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

> 2025: 어린이청소년극의 동시대성에 대한 탐색

논의해야 할 과제

1. 어린이청소년 공연에 대한 전문비평 및 연구의 필요성
2. 어린이성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과 시각을 기반으로 한 창작환경
3.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의 융합적, 총체적 개념에 대한 이해
4. 다양하게 확장되어 가는 어린이청소년공연에 대한 수용과 탐색

감사합니다.

[1부] 1주제

**동시대 어린이청소년극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발상과 방향:
당사자성의 매개 또는 자기 이야기하기 연극**

**남 지 수
(연극평론가)**





2014년생

04.28-05.07

신 촌 극 장



2025 두번째 칠더하기(7+) **어린이연극 페스티벌 - 양동극편**



2025년 2월 15일 토, 2월 16일 일
오후 1시 | 2시10분 | 3시20분
종로 아이들극장



본격 카카오톡 채널
설치하기 어린이연극페스티벌

15일 (토)

어린이와 나
최유진

출연 배우들 최유진, 김민정, 이지민

나의 빨간 날
이지민

출연 배우들 이지민, 김민정

플란디스의 미친 개
정진세

출연 배우들 정진세, 김민정

16일 (일)

왜 태어났니?
원지영

출연 배우들 원지영, 김민정

죽음이 찾아왔다
김현정

출연 배우들 김현정, 김민정

어린이 무덤
강훈구

출연 배우들 강훈구, 김민정

제작 칠더하기 <강훈구 김민정 원지영 이지민 정진세 최유진> 미술감독 이예원 무대감독 김영서 조명감독 김현 주최 칠더하기 주관 칠더하기, 종로문화재단

2025 두번째 칠더하기(7+) **어린이연극 페스티벌 - 양동극편**



2025년 2월 15일 토, 2월 16일 일
오후 1시 | 2시10분 | 3시20분



본격 카카오톡 채널
설치하기 어린이연극페스티벌



15일 (토)

어린이와 나
최유진

출연 배우들 최유진, 김민정, 이지민

나의 빨간 날
이지민

출연 배우들 이지민, 김민정

플란디스의 미친 개
정진세

출연 배우들 정진세, 김민정

16일 (일)

왜 태어났니?
원지영

출연 배우들 원지영, 김민정

죽음이 찾아왔다
김현정

출연 배우들 김현정, 김민정

어린이 무덤
강훈구

출연 배우들 강훈구, 김민정

제작 칠더하기 <강훈구 김민정 원지영 이지민 정진세 최유진> 미술감독 이예원 무대감독 김영서 조명감독 김현 주최 칠더하기 주관 칠더하기, 종로문화재단

감사합니다.

[1부] 2주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정책과 사회문화적 협력체계의 필요성

손준형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연구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정책?

- 중앙정부
- 지방정부(지자체)
- 관련 기관(공공기관, 재단, 예술단체)

1. 공연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1961년)

본법은 제반 공연에 있어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오락(락)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1999년)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2022년)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법(2022년 개정)

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 중략 [개정 2022.1.18, 2022.9.27]

[[시행일 2023.3.28.]]

--- 중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중략 <개정 2018. 12. 24., 2022. 9. 27.>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1.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 ·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미술 · 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 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 · 장려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바람)

1.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 ·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미술 · 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 4.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장 및 예술단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 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 · 장려에 관한 사항
6.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법개정 추진(오신환+아시테지)

201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

- 공연법 제3조 7항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추가 건
- 국회 검토 및 임기만료 법안 폐기

개정안에서 사용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이라는 표현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예술 및 아동·청소년에게 공연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일체의 예술 및 교육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연법」의 기본계획에서 한정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전용 공연장 조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중심 공연예술 활동의 진흥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 공연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출처_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_의안정보시스템 2019.07.23

2025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현실

「공연법」 제3조에 의거, 문체부 장관이 수립·시행해야 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수립된 후, 2013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사라짐. (기간과 방식이 명확히 법에 규정되지 않음)

2022년 공연법 개정 이후, 법령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2025년 3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2025-2029) 공청회(3.27, 15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를 개최하였고, 2025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았음.

아동청소년극 통계 실종

■ 아동청소년 연극 공연 점유율 추이(건수기준) (*출처: 문예연감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아동청소년연극	32.5%	32.2%	44.3%	48.4%	44.4%
이외 연극	67.5%	67.8%	55.7%	51.7%	55.6%

2015년 이후 문예연감에서 아동청소년 연극에 대한 통계 실종

2014년까지 공연 건수 44%이상(횟수 기준 31.4%)

아동청소년 연극 관련 법령과 정책이 부재한 상태 지속

2025년 어린이청소년 관련 문체부 계획

출처 _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개요(p9-10)(2024.12)

□ K-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

- 지원 체계 혁신을 통한 K-컬처의 원류인 '예술' 분야 육성
- '인문정신, 전통문화, 독서·출판' 진흥으로 문화생태계 뿌리 강화
- 국제문화교류 확대로 K-컬처 전방위 확산

□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 부처 협업 확대로 K-콘텐츠의 파급효과를 연관 산업으로 확장
- 관광콘텐츠 다변화로 관광 수출 증진
- K-콘텐츠 대표 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스포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국민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 지역문화 거점을 통한 문화균형발전 지원
- 독창적인 관광콘텐츠 발굴로 지역관광 활성화

○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

프로젝트 확충

-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화 향유 지원 확대

2025년 어린이청소년 관련 문체부 계획

출처 _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개요(p9-10)(2024.12)

○ 청년.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지원강화로 예술진입장벽 완화

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156, 신규)

②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80→132, +50), ②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15, 신규)

③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29, 신규)

④ 오페라합창단 운영(10, 신규)

⑤ 국립청년예술단 신설(49, 신규), ⑤ 산업단지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16, 신규) 등

2025년 어린이청소년 관련 문체부 계획

출처 _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p17)(2025.1)

〈1〉 저출생·고령화 대응 문화기반 조성

- ① **(문화예술)** 어린이·청소년 예술활동으로 문화감수성 형성시기에 알맞은 경험을 제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도록 추진
 - **(어린이예술마을)** 어린이와 가족이 문화예술을 놀이와 체험으로 즐기는 전용 문화공간 '어린이예술마을' 거점 조성('25년 신규 155.7억 원)
 - **(꿈의 예술단)** 오케스트라, 무용단, 극단 등 '꿈의 예술단' 지역 거점 확대(98개→113개) 및 꿈의 스튜디오 신설('25년 신규 25억 원, 10개)
 - **(맞춤형 공연)** 어린이·청소년 대상 연령별 성장단계와 관심사에 맞춘 공연 제작으로 문화감수성 확대 및 미래 관객 개발('25년 신규 30억 원)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정책 수립의 계기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업무계획 기준으로, 어린이청소년극단,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꿈의 예술단 (극단) 사업은 어린이청소년 예술 향유와 창작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린이청소년극 공연 생태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청년을 포함해서 미래 세대 지원 강화라고 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2025년 문체부 주요 과제에 어린이, 청소년 신규 사업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임.
(과거에는 그 조차도 언급이 없었음ㅏㅏ)

추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2025-2029) 주요 과제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장 및 예술단체 활성화>부분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어린이청소년 공연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추진 과정(2011-2025)

2011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개소

2012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문체부 사업계획 수립

2013 기재부 검토 후 최종 부결

* 예산지원 필요, 관련 법령 부재

2024년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문체부 사업계획 수립

2013 기재부 검토 후 예산 편성

* 별도 국립예술단체 설립 불가, 국립극단 내부 추진, 예산 편성

2025년 국립극단 법인 내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추진

2025년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추진 현황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주요 사업	청소년극 및 연구개발, 청소년파트너십	청소년극, 어린이극, 영유아극, 연구개발, 청소년파트너십 사무실 및 연습공간 운영, 대외협력 홍보마케팅, 무대기술
상근직	5명(정규3)	14명(정규12)
팀	1개	3개(경영관리팀, 연구개발팀, 공연기획팀)
사업자등록번호	무	유
예산 규모	1,300백만원(지역공연포함)	3,300백만원(경상비 포함)

토론회 영상 :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과제(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국립극단 주관)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005년 제정, 2015년 개정에 따라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수립

-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18-'22) 확정·발표('18.1월)
-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이행현황 분석
 - *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이행현황 분석 연구('21),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18~'22) 이행상황 분석 연구('21)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추진위원회 구성·운영('22.2월~11월)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22.4월~11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예술교육 현장 의견 수렴('22.5월~9월)
 - * ▲주제별 현장 라운드테이블 운영(10회), ▲대국민설문조사 실시('22.6월~8월, 1,742명참여)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설문조사('22.7월, 1,166명 참여)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정책토론회 개최('22.11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보완('22.12월)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심의 및 의결('23.1월)

문화예술교육 : 법-종합계획(5년)-시행계획(1년)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3개 추진전략, 7개 추진과제, 18개 세부과제 마련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범정부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성과 도출

** 수립 주체

□ 중앙부처(청)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 국립 문화예술 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공공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방자치단체 :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 : 어린이청소년 대상 70% 이상

2022년까지 문화예술교육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업비가 전체 75% 내외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 정책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음. 출처_김혜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고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p5-32, 문화정책논총, 2024

특히, 꿈의 예술단 사업(2025년 사업비 125억/107개) 공연예술단체와 예술교육 전문가, 지자체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어린이청소년극 창작과 예술교육의 화학작용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초단위 꿈의 예술단 지역 운영기관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꿈의 오케스트라	6	1	2	1	2	1	-	1	10	6	3	3	7	2	5	4	-	54
꿈의 무용단	6	-	2	2	1	-	1	-	5	1	2	3	5	1	3	2	-	34
꿈의 극단	2	-	-	1	-	1	-	-	2	2	-	-	3	-	-	1	-	12
꿈의 스튜디오	1	1	-	-	-	-	-	-	1	1	-	1	-	1	-	-	1	7
계	15	2	4	4	3	2	1	1	18	10	5	7	15	4	8	7	1	107

문화예술교육 : 어린이예술마을(가칭)

어린이와 가족이 다양한 예술장르를 놀이로 체험하는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

* 2026년 5월 완공 목표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73>

3. 부처간 협력사업 -보건복지부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관계부처 합동)

수립배경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을 통해 ‘아동 중심’, ‘권리 주체’ 라는 기조가 정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이 아동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1-2-4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소관/협조부처 : 문체부, 교육부)

◦ 문화예술 감수성, 소양 증진을 위해 아동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동 인문학적 기반 조성을 위한 독서 습관형성 지원

▲ 학교예술강사 지원, ▲유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 ▲꿈꾸는 예술터 등 ▲북스타트 사업(영·유아 및 양육자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부처간 협력사업 -여성가족부

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관계부처 합동)

수립배경 : ◆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3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 **문화예술 분야 활동 교육** 지원(소관/협조부처 :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학생 1예술활동 사업을 통해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학교예술강사 활동 환경 개선 등 추진
-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문화소외지역 소규모 학교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운영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전교생 400명 이하의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지역의 작은 학교 중심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4. 공공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비전 2030 발표
(2019.10)

전략과제 4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 >세부과제 2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와 향유를 위한 권리보장
- >핵심사업 2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 창작활동 지원 확대 및 보급

4. 공공기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ACC 어린이극장 (2015년 11월 개관)

전국 어린이와 국내외 예술가들이 함께 하는 새롭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공연*축제를 체험하고 나아가 어린이들이 창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연*축제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공연 제작*지원
어린이공연문화 네트워크 구축

5. 지방자치단체 : 아래로부터 정책/협력 가능성

- 광역 : '공연봄날' (서울시-공연예술단체-교육청)
- 광역 : '2025 경기 아가공연예술 축제'
(경기문화재단-경기도의회-아시테지 코리아)
- 기초 : '꿈의 극단 종로'(종로문화재단-상주예술단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기초 : '노원어린이청소년연극제' (노원문화재단-지역예술단체)
- 기초 : '더 작은 공연장' (금천문화재단-국립극단*ACC-예술단체)

5.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교육청/공연예술단체

✦ 학생들은 공연 보는 날, 공연계는 봄날 ✦

공연봄날

< ... 학교밖청소년 공연관람 신청 안내 ... >

기간	2025. 6. 16.(월) ~ 30.(월)	대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 또는 학교밖청소년 개인
공연	연극·뮤지컬·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등	장소	서울 소재 공연장

5.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45개 공연예술단체/교육청

- 2021년-현재 서울시 청소년 공연관람 지원 사업
- 2024년 초,중,고등학생 3만5천명 관람
- 2025년 사업비 총 33억 규모
-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학생, 학교밖청소년 등으로 관람 대상 확대
- 초5-고1 대상, 2026년까지 서울시 초,중,고 전체 학교로 확대 목표
- 선정작 편수

연극	다원예술	무용	음악	전통예술	뮤지컬	합계
9	6	6	7	9	8	45

- > 2023년 부산 학생문화공연관람 지원 사업 시작
- > 2025년 대전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 사업 시작

5. 지방자치단체 : 경기문화재단/경기도의회/아시테지코리아 등

작은 몸 큰 상상

Little Beings, Big Imaginations

2025. 7. 23 - 7.30 경기상상캠퍼스 일원



올해로 1회를 맞이하는 2025 경기 아가공연예술 페스티벌 <작은 몸, 큰 상상>은 0~3세 미만 아기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저출생 시대, 예술을 활용한 새로운 돌봄 대안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이 축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영아를 위한 문화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기들이 양육자와 함께하는 생애 첫 예술적 경험이 영아의 성장에 유의미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발전했습니다.

출처_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5. 지방자치단체 : 종로문화재단/북새통/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꿈의 극단' 신규 거점기관 공모에 종로문화재단이 최종 선정되면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종로문화재단은 올해부터 5년간 최대 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연극놀이를 중심으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꿈의 극단 종로'는 예술감독 남인우와 종로 아이들극장 상주단체인 극단 북새통이 협력해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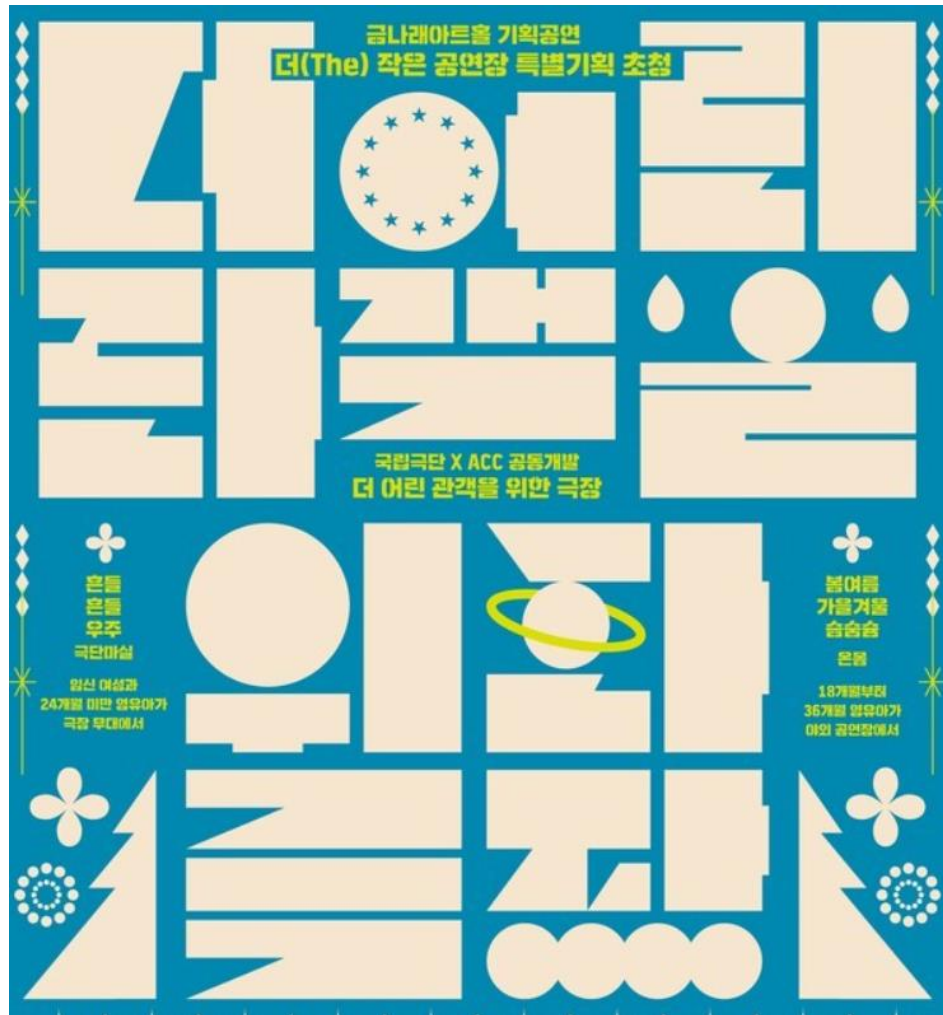
- 지승주, 코리안투데이, 2025.02.28

5. 지방자치단체 : 노원문화재단/지역예술단체



- 제4회 노원어린이청소년연극제 2025
- 지역의 아이들(초4-중2)과 예술단체가 함께 노원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발표
- 2025년 4년간의 결과를 모아 희곡집으로 제작 예정
- 2024년 노원어린이청소년연극제 출품작 <매직 이프! 타임뮤지엄>
 -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한국학교 수업 대본으로 활용

5. 지방자치단체 : 금천문화재단/국립극단×ACC/예술단체



- 2024년 11월, 금천문화재단 담당자 제안으로 협업 시작
- 금나래아트홀 기획공연, 더(The) 작은 공연장 특별기획 초청
- 국립극단×ACC [더 어린 관객을 위한 극장]
- <흔들흔들 우주>(극단 마실)
0-24개월,임신부 관객 대상 / 금나래아트홀
- <봄여름가을겨울 숨숨숨> (온몸)
18개월-36개월 관객 대상 / 오미생태공원
- 더(The) 작은 공연장 (사)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2025년 지역상생 문화동행 페스타' 우수사례 선정

6. 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 공연법 개정 및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촉구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장 및 예술단체 활성화 조항 추가
- 공연예술+문화예술교육+부처 간 공동 정책(아동정책,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창의적인 조건을 만드는 일
- 어린이청소년의 삶과 예술을 연결하는 장소, 중앙과 지역을 매개하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중요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1개, 전체 지자체의 58%)
- 삶/창작현장/지역에 기반한 어린이청소년 공연 = 풀뿌리 문화의 역동성을 만드는 일
- 어린이해방선언 100년, 2023년-2027년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정책이 국내에 자리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

6. 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 어린이청소년극장 네트워크 모임

□ 취지 :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발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관 극장, 극단, 단체 간 소통 지속

□ 참석자(2025.6.23. 기준)

아시테지 코리아 방지영

아시테지 코리아 사무국장 김혜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팀 홍승욱

종로문화재단 공연사업팀 도상원

노원문화재단 공연기획팀 권순철

금천문화재단 예술기획팀 김민아

광진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염승희(어린이공연장 담당)

부천문화재단 공연기획운영부 부장 이미향

부천문화재단 공연기획운영부 주임 이수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센터장 윤나영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손준형, 김미선

감사합니다.

[1부] 3주제

**미래세대를 위한
어린이청소년극 가치와 방향**

**남인우
(극단 북새통)**

문제의식

- 미래세대인 어린이·청소년은 사회적 주도권이 없지만, 이들이 예술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경험은 삶의 본질적 권리다.
- 그러나 현장의 작업자들은 생존의 문제로 바빠 미래 담론과 철학에 소홀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객이 사라지고 현장이 침체되고 있다.
- 지금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왜 지금 어린이청소년극이 필요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할 시점이다.
- 현장에서의 변화와 어려움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시기

다가온 미래 환경 키워드

"디지털 기술, AI 시대의 충격" (AI 시대)

"기후위기, 생태 리스크"

"개별화된 고립 공간 속 공동체 회복"

"다양성의 위협, 포용성, 주체성"

사회문화적 변화와 연극의 가치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

- 감각과 정보의 중독, 확증 편향, 고립의 가속
- 연극은 '안전한 허구' 속에서 딜레마와 갈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 자율성, 공감 능력을 키우는 변혁적 역량 (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육성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

-> "비판적 사고, 딜레마 경험"

사회문화적 변화와 연극의 가치

디지털 기술과 연극

"기술 발전이 주는 충격은 현재진행형"

"AI와 알고리즘 환경 속 비판적 성찰 필요"

"연극은 갈등과 딜레마를 안전하게 다루는 예술"

"미래 역량: 기술 활용 + 자율성과 비판성"

사회문화적 변화와 연극의 가치

- 고립된 공간 환경 (주거, 교육, 가상공간)
- 개별화된 삶 속에서 공동의 감정과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술공간의 필요성 증가
- 디지털 공간이 줄 수 없는 실시간 '함께 있음'을 연극은 가능하게 함

사회문화적 변화와 연극의 가치

기후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 유연하고 이동 가능한 찾아가는 공연, 소규모 공연, 환경 친화적 제작 방식이 중요해짐

문화향유자에서 주체적 문화생산자로

- 어린이·청소년을 단순 소비자가 아닌 문화적 주체로 인식해야 함
- 주체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소재와 주제의 확장이 필요

사회문화적 변화와 연극의 가치

포용성과 다양성의 위협

1. 장애 어린이, 다문화가정, 젠더 이슈, 사회적 소수자 등의 삶을 다루는 작업이 여전히 부족
2. 소재 금기는 없으며, 중요한 건 "어떤 태도로 다루느냐"임

"예술은 삶을 바꾸는 경험의 통로"

"어린이청소년극의 철학과 미학 정립 시급"

"변화된 환경을 탓할 시간이 없다 - 지금 실행!"

실천적 제안과 방향

1. 공간 혁신

-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극장: 다락이 있는 극장, 마루 바닥 극장, 마당극 형식, 한국적 공간 등 창의적인 극장 설계 필요
- 어린이청소년 예술마을(2027년 서울 개관 예정) 같은 시도가 확대되어야 함

2. 찾아가는 공연과 지역 연계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연이 가능해야 함
- 팬데믹, 기후위기, 지역격차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연 배급 시스템 구축 필요
- 덴마크처럼 학교가 직접 공연을 초청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필요

실천적 제안과 방향

3. 접근성의 보장

- 장애 어린이청소년의 공연 향유권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다
- 호주, 영국 사례처럼 맞춤형 공연 개발과 전용 극장 설립, 공공예산 확대가 필수

4. 주제의 확장과 담론의 필요

- 갈등, 부부싸움, 자살, 젠더 등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작업의 정당성 확보
- 연극은 안전하게 현실을 다룰 수 있는 허구적 공간을 제공함
- 동료들과의 담론형성, 연대, 실험과 실패를 장려하는 창작 환경 필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제언

-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설립은 환영할 일이지만, 단순한 운영이 아닌 전국 순회, 지역 커뮤니티 연결, 주제 실험을 실현해야 함
- 현재 창작과 유통을 성인극 중심으로 짜여진 제도 개선 필요
- 어린이청소년은 전체 인구의 15%이며, 이들은 투표권이 없지만 미래의 실질적 결정권자다
예술은 삶을 바꾸는 경험의 통로로 어린이청소년극의 철학과 미학 정립 시급

2027년 아시테지 서울총회: 담론형성과 미학적 발전을 위한 기회

 예술의 역할

 디지털 시대

 공간

 유통 구조

 다양성과 포용

 담론과 연대

 제도 변화

감정·감각의 안전한 체험, 공동체성과 주체성 회복

비판적 사고와 공감력은 예술을 통해 가능

전통 극장을 넘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공간 필요

찾아가는 공연, 소규모 공연, 학교와 협력 강화

장애, 다문화, 젠더 이슈 등 삶의 현실을 연극에 담을 필요

동료들과의 대화, 실험, 국제 교류가 새로운 활력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국가의 책무'로 전환되어야 함

그래도 갈 길을 가야합니다

-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일 수 있음
- 예술경험을 통한 변화는 작은 극장에서 나가는 어린이들과 동반성인들의 표정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음
-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만남, 더 많은 실천이다



감사합니다.